

지역문화 원석을 보석으로 키워주는 ‘지역문화 컨설팅 지원’



지역문화 컨설팅은 왜 필요한가?

지역문화 정책의 추진과정에서 주로 논의되는 것들 중에 바뀌지 않고 계속 해서 이야기되는 것들이 몇 가지 있다. 첫 번째는 문화인력의 수도권 집중화로 인해서 지역문화를 건인할 인력을 지역에서 확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아무리 좋은 사업도 현지화된 인력이 꾸준하게 개입하지 못한다면 좋은 결실을 맺기는 힘들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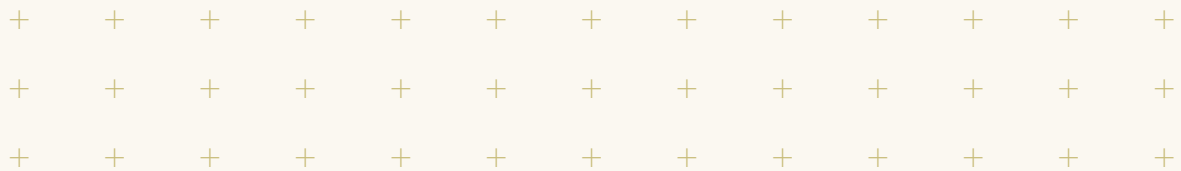
두 번째는 지자체의 단기적 성과 위주의 정책추진 사례들이다. 지역문화정책의 경우, 단체장들이 바뀌면 대부분의 사업들이 재편되고 지속성을 갖지 못한다는 것이다. 지역의 문화사업들도 문화시설 건립 등 단기적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에 집중해 온 것이 현실이다.

세 번째는 지역을 건인할 문화브랜드의 발굴과 육성 전략의 부재이다. 문화브랜드는 지역이 가진 고유의 역사와 문화자원을 체계적으로 발굴하여 지역주민의 주도하에 만들어 가는 지역의 정체성에 다름 아니다. 거의 모든 지역이 가진 이 같은 문제점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지역문화 컨설팅 지원 사업이다.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는가?

사업은 공모 형식으로 추진된다. 문화부가 공모계획을 발표하면, 지역 스스로 지역대학과 지역문화재단 등이 지자체와 협력하여 지역문화 발전을 위한 의제를 선정한다. 이후 민, 관, 대학(문화재단) 중심으로 컨설팅을 수행하여 실질적인 정책 방안을 발굴해 나간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지역의 문화기관과 단체들이 자연스럽게 지역의 문화발전과 진흥을 위해 함께 노력하면서 지역의 문화주체들 간에 자연스럽게 지역문화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간다. 또한 이러한 과정은 지역문화 현안에 대하



여 자율적인 문제해결 능력을 배양하여 지역문화 주체들의 역량이 자연스럽게 높아지는 효과를 가져 온다. 선정된 컨설팅 과제는 각 과제당 5천만 원 이내의 사업비가 지원되며 사후 평가를 통해 우수 사업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인센티브 사업비를 지원한다.

성공 사례는 어떤 사업들이 있나?

컨설팅 사업들 중 많은 성공사례가 있지만 그 중 하나는 2005년 경북대에서 수행한 ‘대구시 도심 문화인프라 진단 및 활성화 컨설팅’이다. 이 과제는 대구 도심의 주요 문화시설, 문화거리 및 전통문화 환경을 대상으로 문화환경 수준을 진단·평가하여, 이를 바탕으로 지역특성화 문화프로그램을 발굴하고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추진되었다.

이 컨설팅은 대구 도심 문화자원의 발굴 및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되었고, 특히 문화관광 브랜드로 도약중인 ‘대구 근대골목’의 시발점이 되었다.

어떤 분야의 사업들이 지원되나?

컨설팅 사업의 범위를 최근 선정된 2013년 12개 사업을 통해서 살펴보자. 12개 사업은 생활문화진흥 및 지역문화발전 계획 수립 분야가 5개 사업, 지역문화자원 발굴 및 육성 분야가 4개 사업, 창조마을 조성사업 분야가 3개 사업 등으로 선정·분포되어 있다. 이러한 선정 분야들을 감안하면 지방자치단체들이 점차 지역주민의 생활문화진흥과 중장기 지역문화발전 정책 수립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앞으로의 사업방향은?

물론 지금까지의 사업들이 모두 성공을 거둔 것은 아니다. 지역문화인력의 한계로 인해 원래 의도했던 컨설팅 결과들이 나오지 않는 경우도 많았지만, 이

러한 사업을 통해 점진적으로 지역문화인력의 전문성이 높아지고 실행가능한 결과물이 많아지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앞으로도 기존 지방대학 중심의 컨설팅 수행에서 지역문화재단, 주민협의회 등을 포함한 다양한 지역문화 추진 주체까지 수행단체를 확대하여 컨설팅 이후의 실행가능성을 더욱 높여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컨설팅 과업 범위를 생활문화진흥 방안 등 새롭게 부가 지러풍 또